

공연관람이 만들어내는 소비 흐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데이터전략실 이상규 차석전문원

들어가며

공연은 사람을 일상의 흐름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동인이다. 우리는 그간 공연 관람을 단순히 문화예술 향유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봤지만, 그 이면에는 '이동'과 '소비'라는 복합적인 경제적 흐름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

본고를 통해 소개할 연구는 공연이라는 문화 행위가 실제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이로 인해 지역의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시도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데이터전략실과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정보팀과 협력하여 수행한 해당 연구는, 공연 관람이 지역 간 이동과 관광업종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본고에서는 해당 연구의 배경과 주요 결과를 소개하며, 공연과 지역관광 간의 연계 가능성과 데이터 기반 공연산업 연구의 향후 방향을 함께 짚어본다.

[그림1] 공연관광이 지역 관광산업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5)

왜 공연과 관광을 함께 분석하는가?

공연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단지 티켓 값에서 그치지 않는다. 공연장으로 향하는 교통비, 관람 전후의 외식이나 카페, 인근 명소 방문, 쇼핑, 심지어 숙박까지 이어지는 소비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공연은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복합적인 경제 활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동안 공연산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연 자체의 수요·공급 구조나 시장 규모 등 산업 내부 중심의 분석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공연 관람이 유발하는 이동과 소비, 특히 관광업종 소비와의 연관성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관광은 체류와 소비를 전제로 하는데, 공연은 이 두 요소의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검증하는 일은 쉽지 않다. 공연 정보뿐 아니라 지역 간 이동, 업종별 소비 등 다층적인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준비되었다.

우리나라는 공연 데이터를 비교적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수집해 왔다. 사람들이 신용카드 등으로 공연을 결제하고 티켓을 발권하는 일련의 과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정부가 구축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으로 전송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축적된 티켓판매 데이터가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신용평가사 등의 여타 민간 빅데이터와 결합 될 경우, 공연 관람자의 실제 이동 경로와 소비 행태를 정밀하고 입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번 연구는 이와 같은 결합 과정을 거쳐 구축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약 19만 5천 건의 공연 관람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관람자의 거주지, 관람 지역, 장르, 관람 일자, 소비 업종, 성별·연령대, 관심사, 취업 여부 등 다양한 개인 특성과 행태 데이터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공연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동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소비를 유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공연관람이 만들어내는 소비의 파장

분석 결과, 공연 관람은 분명히 다른 산업의 소비 증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시군구 기준)에서 공연을 1회 더 관람할 경우, 관광업종에 대한 소비 지출은 평균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거주지 내에서 공연을 본 경우에도 소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같은 지역 내에서 공연 관람이 1회 늘어날 경우, 관광업종 소비는 약 3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집 근처에서 공연을 보더라도 공연 전후로 외식이나 쇼핑 등을 즐기며 관광업종 소비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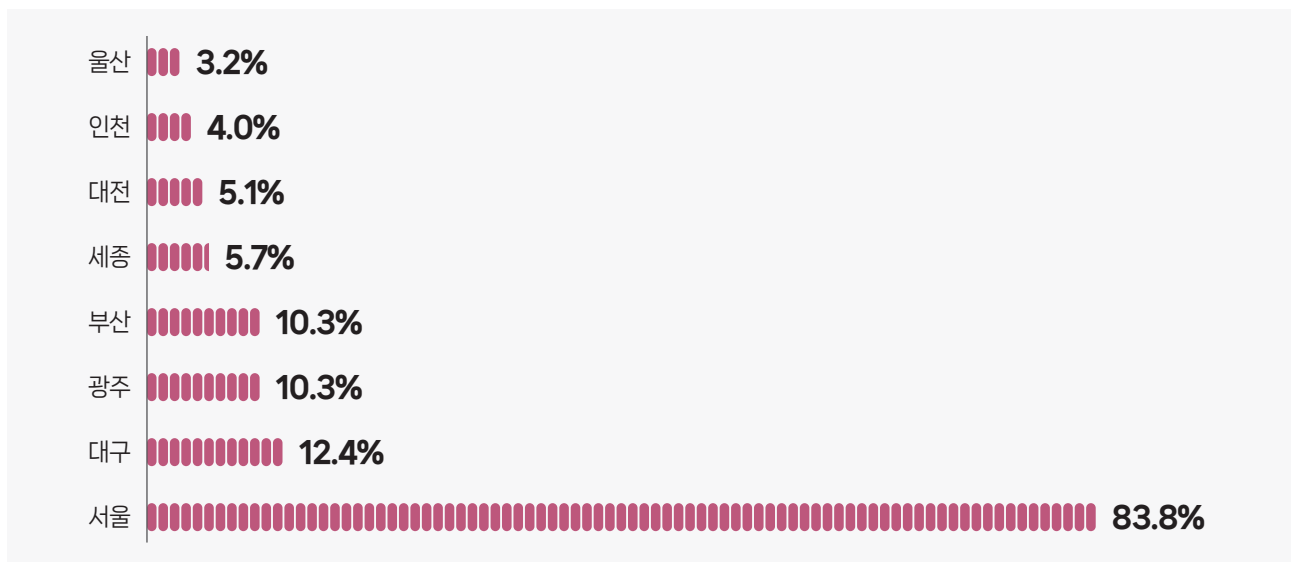
여기서 말하는 관광소비는 단순한 공연 관련 상품이 아닌, 숙박, 음식, 레저, 스포츠 등 공연 전후의 전반적인 지역 체류 활동을 포함한다. 공연은 단지 보고 끝나는 경험이 아니다. 사람들은 공연장을 중심으로 주변 공간과 시간을 함께 소비하며, 그 행위 자체가 도시의 경제를 움직이는 흐름을 만든다.

사람들은 공연을 보러 어디로 이동하는가?

그러나 이번 분석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사실은, 국내 공연 관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울 거주자가 관람한 공연건수의 약 83%가 서울 내에서의 공연에 해당했으며, 서울 외 지역으로 이동해 관람한 건수는 16.2%에 불과했다. 반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주요 광역시 거주자의 공연 관람 데이터를 살펴보면, 공연건수 중 80~90% 이상이 타 시도로 이동하여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대다수는 서울로 향했다.

[그림2] 거주지 내 공연관람 비율(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5)

주: 이 차트는 이동 없이 거주지(광역시) 내에서 공연을 관람한 건수가 전체 관람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일종의 '공연 자급률'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의 경우 전체 공연 관람 중 83.8%가 서울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중은 단순히 공연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공연 콘텐츠의 공급 수준, 공연장 시설, 정보 접근성, 마케팅 역량, 지역 주민의 기대 수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공연장이 있더라도 불만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거나, 유입되더라도 이를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면, 공연 수요자들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진 서울로 기꺼이 이동하게 된다.

지역으로 관객을 유도할 수 있을까?

서울 편중은 공연이라는 상품이 지닌 특성과도 관련이 깊다. 공연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만 향유할 수 있는 현장 기반 경험재이기 때문에, 팬덤 중심의 충성도 높은 관객층이나 특정 장르에 강한 애착을 가진 매니아층은 원하는 공연을 보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일부 공연은 희소성이 높은 데다 재공연 가능성도 낮아, '지금 아니면 볼 수 없다'라는 절박감과 중독성이 반복 관람과 원거리 소비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특성은 공연 콘텐츠에 대한 선택지가 압도적인 서울로의 집

중 이동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한 특성은 서울 관객을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그림3]의 시도 간 공연 관람 이동 행렬을 살펴보면, 많은 지역에서 서울 거주자가 가장 큰 외부 관람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이미 서울 관객이 주요 소비층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역 공연시장에 잠재 수요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림3] 지역(시도) 간 공연관람객 이동행렬 비율



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5)

주: 이 차트는 국내 공연시장에서 시도 간 이동 조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세로축은 관람자의 거주지를, 가로축은 공연장 소재지를 의미한다. 특히, '서울에서 출발해 서울에서 공연을 관람한' 조합은 전체 시도 간 이동 조합 중 34.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음영이 짙을수록 이동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공연은 도시를 방문하게 만드는 강력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소비를 낳고, 소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문제는 이 긍정적 흐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 경제의 기회를 제한하고, 문화 향유의 균형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연결된다. 공연의 파급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제는 이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마치며

이번 연구는 공연이라는 문화 행위가 단순한 예술 향유를 넘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력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초기 시도 중 하나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연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동시키고, 어떤 소비를 유발하며, 지역경제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가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뚜렷한 '서울 집중' 현상이 확인되었고, 이는 지역 문화정책과 공연 유통 구조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 지역에서도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양질의 공연 콘텐츠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광역시를 중심으로 거점화된 공연 시장이 조성된다면,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로 향하던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조금씩 지역에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공연을 매개로 발생하는 연계 소비 효과도 서울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전반으로 보다 균형 있게 분산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공연정보 수집 체계와 데이터 기반이 사전에 구축되어 있었던 정책적·산업적 준비가 있었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준비해 온 결과다. 앞으로 우리 공연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정책을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정교하게 분석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소개한 연구보고서 전문은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조문헌

· 이상규, 오시진, 정인혜, 이다운. (2025). “공연관광이 지역 관광산업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예술경영지원센터·한국문화관광연구원 협력연구 2024-01.